

다시 '5월' ... 그날의 얘기들 풀어낸다

광주트라우마센터 '5월 광주 치유사진전' 서울·대구·부산 순회
동학혁명 정신 5·18까지 ... 시립미술관 '오월의 파랑새'전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진행한 사진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5·18 유공자가 80년 5월 현장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황의수씨가 촬영한 '남광주병원 5·18 유공자 정신치유 병동'.



이종구 작 '국토-오지리에서'

오월이다. 34년 전 그날이 다시금 생각나는 오월이다. 민주화를 외치다가 처참하게 죽어간 그들이 생각나고, 작금이 부끄러워지는 오월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4주년을 맞아 그날의 이야기들을 풀어낸 전시회가 잇달아 열린다. 특히 올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아픔과 트라우마를 사진으로 승화시킨 작품들이 서울과 대구, 부산을 순회할 예정이어서 5·18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치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트라우마센터(센터장 강용주)는 5·18기념재단,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과 대구, 부산에서 '기억의 회복'을 주제로 오월광주 치유사진전을 연다. 서울 전시는 9~25일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리고, 대구 예술발전소(5월29일~6월15일), 부산 민주공원(10월16~26일)에서 연이어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는 34년 전 그날, 역사의 한복판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김광수·김중현·박시영·이종우·정철·정홍섭·조양배·최용식·황의수씨 등 9명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진행한 사진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 완성한 결과물들이 소개된다. 전시는 임종진 대안사진공간 달팽이사진공방 대표와 김선정 아시아문화정보원 예술감독이 기획했다.

5·18로 고통받고 상처 입은 유공자들은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던 장소에서 상처와 대면하고, 사진을 찍어 마음의 고통과 응어리를 치유했다. 그리고 치유했던 그날의 기억을 다시 세상에 꺼내 놓는다.

이들은 아직도 5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밤에는 주검이 나오거나 공수부대원들에게 쫓기는 악몽에 시달린다.

황의수씨는 '남광주 병원 5·18 유공자 정신치유 병동'의 모습을 담았고, 이종우씨는 '전일빌딩 옥상에서 바라본 옛 전남도청'을 카메라로 찍었다. 정철씨는 '귀갓길 육교 위의 가로등'을 촬영했다.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를 존엄한 삶의 가치를 온몸으로 전하고자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라는 것이 작가와 기획자의 말이다. 문의 02-733-8945.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에서는 6월8일까지 본관 제3, 4전시실에서 2014 민주·인권·평화전 '오월의 파랑새'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5·18기념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후원으로 마련됐다. 2014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고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뜻 깊은 의미를 지닌다. 1894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사회를 뿌리째 흔들고 근대사회로 넘어가게한 가장 치열한 민족·민중운동이었다. 특히 이러한 정신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까지 이어졌다.

이번 전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에서부터 5·18민주화운동 정신에까지 이어지는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을 시각적 메시지를 통해 전달한다. 여운·이종구·김호원·김인순·박영준·지용출·최요안·하달용·이동환·김광철 작가가 '민중의 애환을 담다', '현실을 직시하다', '미래의 희망을 기대하다' 등 세 가지 색선에서 매체와 형식을 달리한 작품으로 메시지를 담아낸다.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농촌현실을 주제로 한 국적 삶의 원형을 탐구했던 이종구 작가의 '국토-오지리에서'(국립현대미술관 소장)와 노동과 인권에 대한 문제를 서사적으로 풀어낸 박영준 작가의 '저기에서 내가 있는 이곳까지', 부드럽고 섬세한 감성으로 민중의 역사와 남도의 한을 서정적으로 그려 인간의 원초적 감성을 자아내는 김호원 작가의 '천지수인(天地水人)'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오는 21일 오후 3시에는 본관 세미나실에서 '호남 정신사의 맥, 동학에서 오월까지'(주제 발제 조 선대 이종범 교수)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문의 062-613-714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10개국 민중가요 한자리

오월음악회 ... 1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민주·인권·평화를 노래한 세계 10개국의 민중가요를 만나는 무대가 광주에서 마련된다.

광주국제교류센터와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1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제12회 오월음악회를 개최한다.

'광주에서 만나는 세계 음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비롯해 프랑스 혁명 당시 시민군의 노래이자 현재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 호주의 역사와 다문화적 전통을 담고 있는 'I am Australian', 미국 노예해방주의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행진곡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 등 역압 받는 민중과 민

족에 대한 사랑을 담은 세계 각국의 음악을 소개한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영어로 번역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첫 선을 보인다. 영문 번역 작업은 광주국제교류센터 신경구 소장(전남대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과 로버트 데이비드 그로트존(Robert David Grotjohn) 전남대 영어영문학과 교수가 협력했다. 영문 번역된 '임을 위한 행진곡'은 김현옥 작곡가(목포대 음악과 겸임교수)가 합창곡으로 편곡, 호신대 콘서트콰이어(박창우 지휘)와 광주국제교류센터 외국인이 합창한다. 전석 1만원. 문의 062-226-2733.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을 보는 인문학적 시선

담양 명지미술관 사진 아카데미



담양 명지미술관(대표 강봉규·사진)은 '사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주제로 17일부터 10월11일까지 사진 아카데미를 개강한다.

이번 사진 강좌는 현대 예술의 중심적인 매체로 영역을 자리 잡고 있는 사진을 단순한 피사체로서가 아닌 다양한 인문학적 사고와 논의를 통해 사진을 읽는 방법을 강의한다.

주요 강의 내용은 '사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예술로서의 사진', '프레임', '관찰', '사진의 의미를 위한 고찰', '미학의 탐구 자연미와 예술미', '사진가의 눈' 등이다.

초빙강사로는 원로사진작가인 강봉규 광주 예술인회 고문을 비롯해, 정금희 전남대 예술대학 교수, 김종서 시인, 인촌고 사진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사진 아카데미는 10월11일까지 22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담양 명지미술관에서 진행되며, 실습수업과 함께 현장촬영, 워크숍이 마련된다. 문의 061-383-2576.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국제큐레이터코스 참가자 모집

광주비엔날레재단, 10일까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오는 10월까지 제6기 국제큐레이터코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국제큐레이터코스는 '예술을 통한 사고의 다이내믹'(The dynamics of thinking through art)을 주제로 8월11일부터 9월6일까지 진행된다.

지도 교수는 2007카셀도큐멘타 큐레이터, 영국 왕립예술학교(Royal College of Art) 현대미술기획 프로그램 디렉터 등을 역임한 루스 노악(Ruth Noack)이다.

이번 강의에는 지도 교수를 비롯해 2014광주비엔날레 총감독,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2014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 국내·외 전시 기획자 및 비평가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강의 외에도 제10회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 전시 준비 및 작품 설치 현장에 참여하는 실무형 프로그램이 병행되며, 특히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 특별기획전 및 학술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만 33세 이하 전시 기획자 등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코스 전 과정은 영어로 진행된다. 지원서를 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curatorcourse@gwangjubiennale.org)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08-424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두암신협

정기예탁금

1년 6개월 **3.1%**

1년 **2.95%**

알찬예탁금 최고 **2.9%**

수시입출금통장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두 암 신 협

본 점 : 263-0136 (말바우 사거리)
울곡지점 : 264-1232 (두암중학교 입구)
첨단지점 : 572-9511 (호반아파트 정문 맞은편)

정기예탁금

1년 6개월 **3.1%**

1년 **2.95%**

알찬예탁금 최고 **2.9%**

수시입출금통장

OPEN 30년 전통 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생존

유·스퀘어점

유생존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 (미취학) 4,000
음료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환타, 쥬스)

프리미엄 회산골 임도지
· 풍부한 육질
· 부드러운 식감
· 손질정확하고 자연 허브 숙성
· 최상급 무공해 신선농산물

즉석요리

얼리지않는 샌드위치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탕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

유생존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 (미취학) 4,000
음료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환타, 쥬스)